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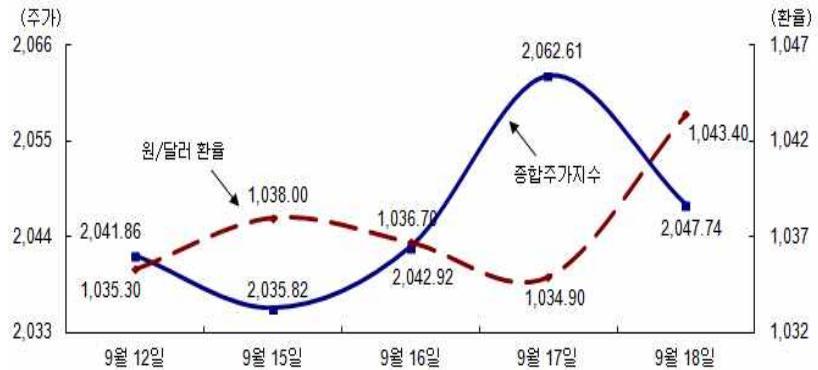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이 시급하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2~9.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조 규 림 선임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 한중간 교역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한국 경제에 있어 대중국 수출의 중요성

2000년 이후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기여도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2014년 대중국 수출의 국내 총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0.4%p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 대중국 수출 현황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특히 2014년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2008년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22.1%로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13.9%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 EU,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량 기준으로 봐도 증가 추세를 보이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중국 수출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품목별로 볼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비중이 큰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기계, FDP(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수출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석유제품과 FDP의 경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과 기계는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성질별 수출을 보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이 포함된 원자재 부문 수출이 2014년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이며,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자본재 수출도 최근 기계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가공단계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가공품 수출이 2014년 7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7.8% 감소하여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원인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서는 첫째,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수입수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던 중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 부문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 및 수출 부진은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수요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2009~2013년 연평균 8.6%에서 2014년 7.0%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자본재 수입 증가율은 동기간 11.1%에서 0.2%로,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12.6%에서 -8.9%로 하락했다. 한편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09년~2013년 연평균 16.5%에서 2014년 2.9%로 하락했으며, 중국의 중간재 수입 증가율은 동기간 13.7%에서 2.0%,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율은 14.2%에서 0.7%로 하락

했다. 둘째, 한중 간 기술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양국간 분업구조가 변화하며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간 분업구조를 보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간 무역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동일한 산업내에서 제품 차별화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내 무역 비중은 2000년 41.7%에서 2013년 53.8%로 증가하였다. 동일 품목간 교역 증대는 결국 중국 제품이 한국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중 간 교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 부문의 경우 산업내 무역 비중이 2000년 42.0%에서 2013년 60.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석유화학 및 FDP 관련 부문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급률 상승으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같은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은 2002년 44.5%에서 2013년 68.8%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디스플레이 패널의 자급률은 2011년 1% 수준에서 2014년 3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 넷째, 중국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무역 축소 및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비중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이 축소됨에 따라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총수입 비중은 2000년 55.8%에서 2013년 39.2%로 하락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부품소재 비중은 여전히 35%에 달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품소재 현지조달 비중도 2007년 46.1%에서 2012년 57.4%로 증가하면서 대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시사점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 축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간재 수출구조에 의한 부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석유화학과 IT, 기계 부문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 방안 등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교역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등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한국 경제에 있어 대중국 수출의 중요성

-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대중국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
 -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3년 26.1%로 증가하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상승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며 대중국 수출이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기여도가 축소
 - 2000~2008년 국내 총수출에 대한 대중국 수출의 기여도는 평균 3.9%p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3년 기여도는 평균 2.6%p로 하락¹⁾
 - 특히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총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0.4%p로 마이너스로 전환
-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는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기존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의 1%p 하락은 국내 총수출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²⁾

< 대중국 수출/총수출 비중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국가별 국내 총수출 증가 기여도 >

	(단위: %, %p)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8월
총수출	13.2	6.9	2.6
중국	3.9	2.6	-0.4
일본	0.6	0.4	-0.2
미국	1.0	0.7	1.1
EU	1.9	-0.3	0.9
ASEAN	1.3	1.4	0.8
기타	4.5	2.0	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2014년 8월은 잠정치 기준.

1) 기간 중 국내 총수출에 대한 주요 국가별 수출 기여도는 연도별 기여도의 단순 평균을 의미하며, 2014년은 1~8월 누적 수출의 전년동기간대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2) 현대경제연구원(2012.2.20.), "양날의 칼, 중국 경제", 「현안과 과제 12-07」.

2. 대중국 수출 현황

○ 대중국 수출과 주요 국가별 수출 비교

-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금융위기 전 연평균 증가율이 22.1%에 달했던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13.9%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1.5%로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
 - 반면 대미 수출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13.3%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2014년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던 대EU 수출은 2014년 증가율이 10.3%로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냄

-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봐도 대중국 수출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³⁾
 - 대중국 수출 물량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5.6%에서 금융위기 이후 1.3%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 -6.9%로 감소세 전환
 - 반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EU, 아세안으로의 수출 물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8월				
			Q1	Q2	7월	8월	
총수출(100)	13.2	6.9	2.6	1.7	3.2	5.4	-1.2
중국 (26.1)	22.1	13.9	-1.5	2.8	-2.8	-7.1	-4.3
미국 (11.1)	2.7	13.3	9.7	2.6	13.1	18.7	10.9
일본 (6.2)	4.1	12.3	-3.9	-10.1	0.0	5.9	-4.9
EU (8.7)	12.1	1.2	10.3	16.3	6.9	9.6	-0.2
아세안(14.7)	11.8	18.9	5.5	10.1	1.8	6.0	0.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는 2013년 기준 총수출 대비 각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

2) 2014년은 1~8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률이며 8월은 잠정치 기준.

3)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수출 물량 증가율 추이는 【별첨】 참조.

○ 품목별 대중국 수출 현황

-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기계,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FDP)의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둔화
 -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대중국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기계 역시 2014년 2분기부터 수출 증가율이 급락해 7월 -32.0%를 기록
 - 대중국 수출의 12.4%(2013년)를 차지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176.6%에 달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철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
 - 대중국 철강 수출은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0.1%로 부진하였으나 자동차용 강판 수출 등의 증가로 2014년 들어 10% 이상의 증가세 지속
 - 자동차 수출은 2014년 들어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며,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역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8년	2009~ 2013년	2014년 1~7월			
			Q1	Q2	7월	
석유제품 (5.7)	22.5	15.8	-24.7	-26.2	-28.4	-9.7
석유화학 (16.1)	20.3	13.5	-6.1	-9.2	-4.0	-2.6
철강 (3.1)	16.3	-0.1	14.0	12.5	14.1	18.8
기계 (7.2)	35.1	15.7	-0.5	31.1	-12.3	-32.0
자동차 (5.0)	41.8	19.8	14.5	9.6	14.1	31.2
무선통신기기 (3.5)	63.2	-4.5	27.4	21.8	25.7	50.6
컴퓨터 (1.8)	24.1	1.4	9.5	1.8	21.9	0.1
반도체 (14.9)	40.5	23.9	23.1	35.3	20.2	3.0
평판 디스플레이(12.4)	176.6	8.8	-8.7	-9.3	-9.4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코드 기준 석유제품(133), 석유화학(21), 철강(61), 기계(71, 72, 73), 자동차(741,742), 무선통신기기(812), 컴퓨터(813), 반도체(831), 평판 디스플레이(8361).

2) ()는 2013년 기준 대중국 총수출 대비 각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

3) 2014년은 1~7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률.

○ 성질별 및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현황

- 성질별로 보면 원자재 수출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자본재 수출 증가율도 크게 하락
 - 대중국 수출의 33.6%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출 증가율의 경우 2009~2013년 연평균 11.5%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8.0%로 감소세를 기록
 - 대중국 수출의 61.1%를 차지하는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5.8%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14년 1.8%로 급격히 하락

- 가공단계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부품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반가공품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⁴⁾
 -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품 수출이 9.8% 증가하였으나 반가공품 수출이 7.8% 감소해 2014년 1~7월 누적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기간 대비 0.7% 증가에 그침⁵⁾
 - 대중국 수출의 22.9%를 차지하는 자본재 수출의 경우 2014년 7월 누적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8.9% 감소

< 성질별 대중국 수출 증감률 추이 > (%)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7월
원자재 (33.6)	15.7	11.5	-8.0
자본재 (61.1)	32.5	15.8	1.8
소비재 (5.3)	16.5	9.5	9.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 1) ()는 2013년 기준 대중국 총수출 대비 각 성질별 대중국 수출 비중.
- 2) 2014년은 1~7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률.

<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증감률 추이 > (%)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1~7월
1차 산품	35.3	-0.2	-11.1
중간재	20.9	14.2	0.7
반가공품	16.1	11.5	-7.8
부품	31.0	17.4	9.8
최종재	27.8	13.2	-6.2
자본재	31.7	12.6	-8.9
소비재	15.6	18.4	14.0

자료: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BEC 기준에 따라 가공단계를 구분.
- 2) 2014년은 1~7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률.

4) 성질별 분류는 국내 무역통계상 분석 편의를 위해 분류한 기준이며 가공단계별 분류는 국제기준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에 따른 분류임. BEC 기준은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에 따라 원자재(1차 산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4단계로 품목을 구분.

5) 대중국 수출 중 부품 수출 비중은 36.7%, 반가공품 수출 비중은 36.6%.

3. 대중국 수출 부진의 구조적 원인

○ 중국의 성장 속도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2000~2008년 연평균 10.6%로 성장했던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8.8%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2014년에는 7.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중국 투자 부문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입 수요 하락은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역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
 -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2008년 이전 13.8%에서 이후 8.6%로 하락했으며 2014년에는 7.0%에 그치면서 자본재 수입 수요가 크게 하락
 -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증가율 역시 금융위기 전 31.7%에서 금융위기 이후 12.6%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8.9%로 감소세로 전환
- 한편 중국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역시 증가율이 크게 하락
 - 중국의 총수출 증가율 역시 2014년 2.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 수요 역시 감소
 -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증가율 또한 2009~2013년 14.2%에서 2014년 0.7%로 크게 하락

< 중국 투자 및 자본재 수입 증가율 >

< 중국 수출 및 중간재 수입 증가율 >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2000~2008년			2009~2013년			2014년
중국의 투자 증가율	13.8	8.6	7.0	중국의 수출 증가율	24.4	16.5	2.9
중국의 자본재 수입	21.8	11.1	0.2	중국의 중간재 수입	19.4	13.7	2.0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31.7	12.6	-8.9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20.9	14.2	0.7

자료: IMF,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중국의 2014년 투자증가율은 IMF 전망치를 이용해 산출.

2) 2014년 중국의 수출증가율 및 자본재, 중간재 수입,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중간재 수출 증가는 2014년 1~7월 누적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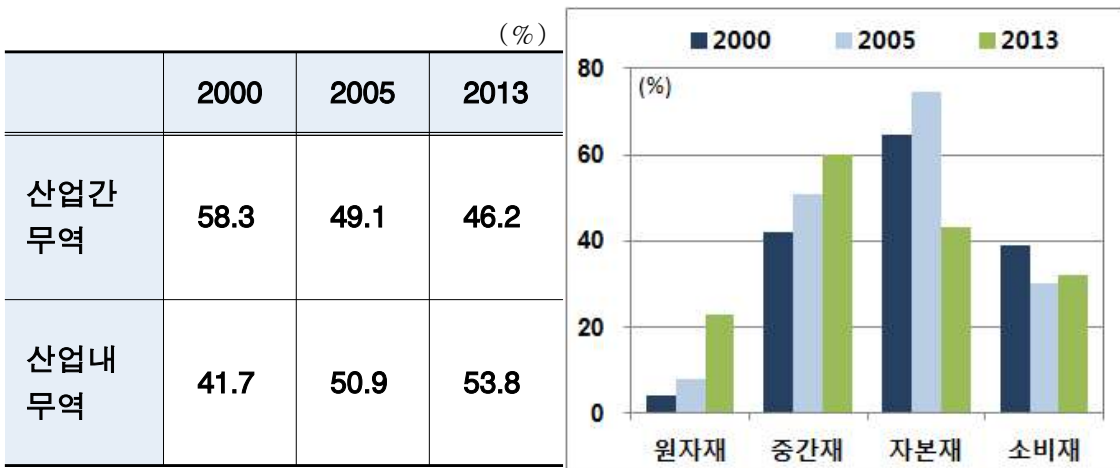
3) 자본재와 중간재는 HS6단위 자료를 BEC 코드와 연계하여 가공단계를 분류.

4)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 및 증감률을 의미.

○ **한중 간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분업구조의 변화**

- 한중 간 분업구조를 보면 산업간무역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산업내무역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한중 간 산업내무역 비중은 2000년 41.7%에서 2013년 53.8%로 증가한 반면 산업간무역 비중은 58.3%에서 46.2%로 축소
 - 산업간무역은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차이에 의해 특정 제품을 수입 혹은 수출만 하는 무역이나 산업내무역은 제품 차별화나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동일한 산업내에서 발생하는 무역을 의미
 -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산업내무역 비중의 증가는 중국의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동일 품목의 쌍방무역 증가를 의미
- 한편 가공단계별 분업구조를 보면 중간재 교역에서의 산업내무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
 - 한-중 간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경우 산업내무역 비중이 2000년 42.0%에서 2013년 60.1% 증가
 - 중간재의 산업내무역 비중 축소는 한중 간 중간재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결국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

<한중 간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 비중 추이> <한중 간 가공단계별 산업내무역 비중 추이>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는 전체 교역액 대비 비중을 의미.

2) 해당 품목 수출입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Min(X_i, M_i)/Max(X_i, M_i) > 0.1$) 양국간 쌍방무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산업내무역으로 판정(단, X_i, M_i 는 각각 i 산업의 수출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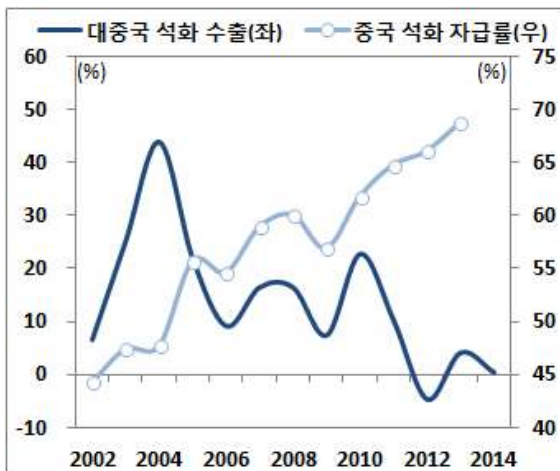
3) HS6단위 자료를 BEC 코드와 연계하여 가공단계를 분류.

4) 2010년 한중 간 산업내무역 비중은 54.3%로 2013년에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환율 등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이 심해 장기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중국의 생산 설비 확대에 따른 자급률 상승

-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국내 생산 확대로 수입 대체 효과 발생⁶⁾
-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인해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며 자급률이 상승
 - 중국의 석유화학 관련 공장 증설 등으로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은 2002년 44.5%에서 2013년 68.8%로 크게 상승
 -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증가율은 2002~2008년 평균 20.0%에 달했으나 2009~2013년 평균 8.0%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0.5%에 불과한 수준
- 중국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부문 자급률 급격히 상승
 - 중국 정부는 중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업체에 대한 법인세 인하, 패널 수입 관세 제정 및 세율 인상 등 강력한 육성 정책을 시행
 - 2011년 1% 수준에 불과하던 중국 TV 패널 자급률이 2014년 1분기 약 3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한 반면 한국의 대중국 FDP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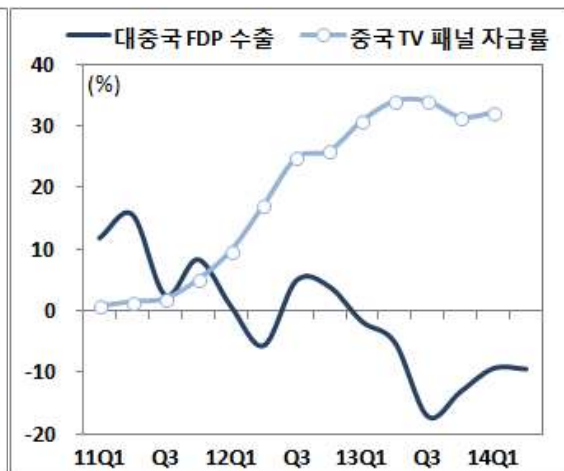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 증가율 및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추이 >



자료: CEIC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주: 1)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 2) 석유화학 자급률=생산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

< 한국의 대중국 FDP 수출 증가율 및 중국의 TV 패널 자급률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Display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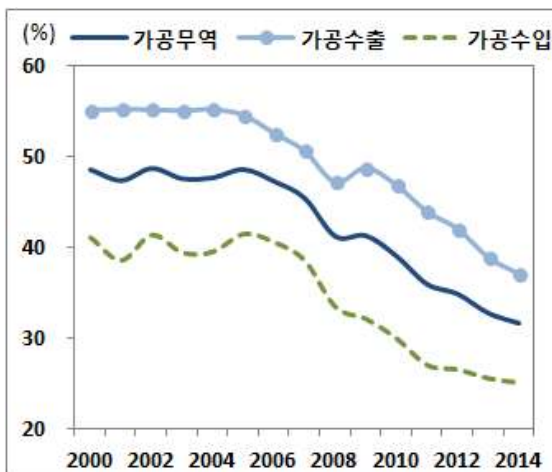
- 주: 1) 중국 TV 패널 자급률은 중국 TV 브랜드가 중국산 패널을 사용하는 비중.
- 2) FDP(Flat Display Panel)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의미(MTI 코드상 8361).

6) 2013년 대중국 수출 대비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FDP의 수출 비중은 각각 5.7%, 16.1%, 12.4%. 한편 석유제품 생산 설비인 정유시설의 경우 BP에 따르면 중국의 정유설비 증설로 인해 원유정제 능력은 2013년 1월 1,260만 배럴로 지난 2002년 1월 593만 배럴의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국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한국의 원유정제 능력은 2013년 기준 1일 289만 배럴 수준).

○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가공무역 축소 및 부품소재 수입 비중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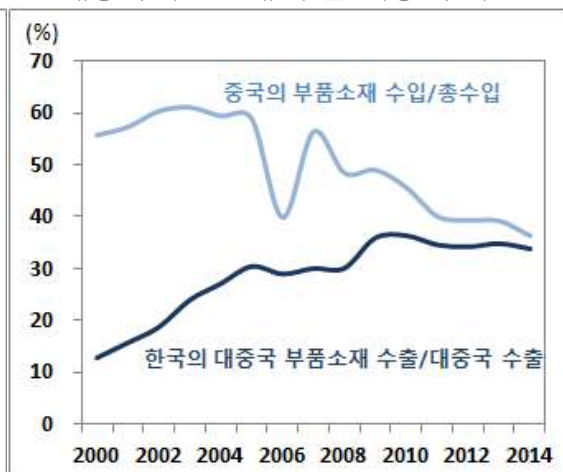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그 동안 중국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공 무역 비중이 빠르게 하락
 - 중국 총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5%에서 2014년 31.5% 수준으로 감소
-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에 따라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총수입 비중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아직까지 부품소재 중심
 -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총수입 비중 역시 2000년 55.8%에서 2014년 36.3%로 하락한 반면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14년 33.8%로 증가
 -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증가 둔화로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증가율이 2014년 상반기 -0.1%를 기록하여 대중국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⁷⁾
- 더욱이 중국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등에 따른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부품소재 현지 조달 비중 증가 역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
 -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현지매입 비중은 2007년 46.1%에서 2012년 57.4%로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동기간 38.2%에서 29.9%로 감소

< 중국의 가공무역/총무역 비중 추이 >



자료: CEIC.
주: 2014년은 1~8월 누적 기준.

<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 비중 및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2014년은 상반기 누적 기준.

7)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 추이는 【별첨】 참조.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전망)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향후 대중국 수출 경로를 통한 차이나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내외수 동반 악화라는 경기적인 요인과 더불어 한-중 간 교역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중국의 내외수 동반 부진에 따른 경기적 요인과 주요 품목의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축소 등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 더욱이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중국 수출구조가 유사한 일본 제품과 중국 시장내 경쟁에서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
 - IMF는 최근 2014년 및 2015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최근 IMF는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6%에서 7.4%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5년 전망 역시 7.3%에서 7.1%로 하향 조정
 - 다만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따른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확대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를 방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⁸⁾
 - 더욱이 한중간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부진은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의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는 석유제품, 석유화학과 IT, 기계 부문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석유화학과 평판 디스플레이 등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수출이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움

8) 한국 및 대만 등은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지만 최종 수요지는 미국과 유럽임. 따라서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가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축소와 상쇄될 것으로 전망(산업연구원(2014.06.26.), “중국의 경기 감축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KIET 해외산업정보).

- (대응방안)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교역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할 필요

첫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현실화되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흥시장 발굴 및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 중국 이외의 신흥공업국에 대한 수출 활로 개척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 중인 ASEAN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진출 노력이 요구
- 한편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는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 및 기업들 간 공조 체제가 활성화 될 필요

둘째,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 및 중국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등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및 가공무역 축소 등으로 과거와 같이 중간재의 대중 수출을 통한 수출 증대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간재 위주인 대중 무역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소비재 및 자본재 등 최종재 위주로 전환해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할 필요
 -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분석과 현지 맞춤형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서비스 업계의 중국 진출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중 간 우호적 관계 증진 및 한중 FTA 등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

셋째,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중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상승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은 향후 중국 시장내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범용제품보다는 고부가·고기술품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중국 제품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필요
- 특히 핵심 신소재·부품,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통해 중국이 단기간에 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력 산업을 확보해야함

넷째,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일부에서는 최근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 및 금융시장 거품 등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⁹⁾
-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에 대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의 구축 및 실행 능력 점검 노력이 필요함

조규림 선임연구원(2072-6240, jogyurim@hri.co.kr)

9) 2014년 4월 29일 밀켄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하버드대 교수인 로고프(Kenneth Rogoff)는 중국 경제가 5년내 러프랜딩(rough landing)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뉴욕대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 역시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 landing) 가능성을 언급.

【별첨】

<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수출 물량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0~ 2008년	2009~ 2013년	2014년 1~8월			
			Q1	Q2	7월	
중국 (21.4)	5.6	1.3	-6.9	-5.5	-7.6	-9.0
미국 (8.0)	-1.1	11.8	12.8	8.4	19.2	5.9
일본 (10.2)	-8.0	14.2	-5.5	-13.5	0.8	6.8
EU (6.2)	9.2	-5.5	16.8	42.8	6.9	-4.7
아세안(21.6)	8.4	11.5	8.4	12.3	4.8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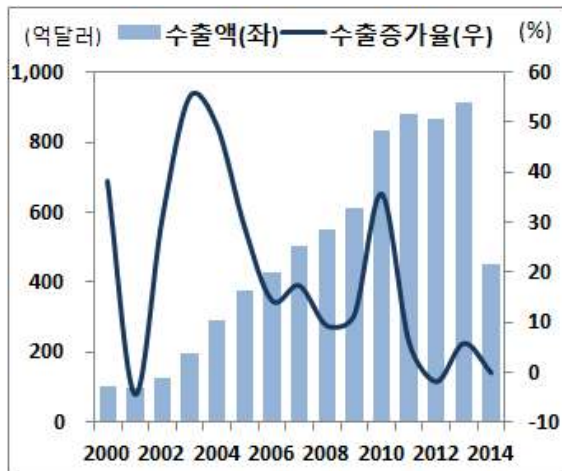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수출 물량은 Kg 기준.

2) ()는 2013년 기준 총수출 대비 각 국가에 대한 수출 물량 비중.

3) 2014년은 1~7월 누적 전년동기간 대비 증감률.

<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액 및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부품소재통계종합정보망.

주: 2014년은 상반기 누적 기준.

< 한중 간 산업내 및 산업간 무역 규모 >

(%)

	2000	2005	2010	2013
산업간 무역	182	493	861	1,057
산업내 무역	130	512	1,023	1,232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는 전체 교역액 대비 비중을 의미.

2) 해당 품목의 수출입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Min(X_i, M_i)/Max(X_i, M_i) > 0.1$) 양국 간 쌍방무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산업내무역으로 판정(단, X_i, M_i 는 각각 i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의미).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7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1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1.6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7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11일	9월 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55	2.61	0.06%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7.11	108.69	1.58 ¥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925	1.2923	-0.000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049	17,266	217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909	16,068	15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50	2.37	-0.13%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36.1	1,043.4	7.3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34.2	2,047.7	13.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11일	9월 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2.91	93.10	0.19\$
	Dubai	107.99	100.38	107.88	95.81	96.37	0.56\$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3.45	281.61	-1.84\$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